



▲ 왼쪽 두번째가 도암농장의 이명규 사장.

경기도 이천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350두의 도암농장은 2003년 2~3월 사이 PMWS로 40~45일령 구간의 자돈 300여 마리가 폐사했다. 도암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이명규 사장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모돈 및 자돈의 백신관리와 사육환경의 변화로 이를 극복했고 지금까지 PSY(Piglet per sow per year) 26.1두, MSY(Market per sow per year) 25.6두의 성적을 내고 있다.

이는 모든 1두당 연간 이유 후 출하까지 폐사가 0.5두이며, 현재 전국 MSY가 15~16두임을 감안한다면 도암농장의 성적은 기적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PED가 극성을 부릴 때, 이 질병에 대한 피해를 거의 보지 않은 도암농장의 경험과 사양 관리방법을 이번 월간양돈에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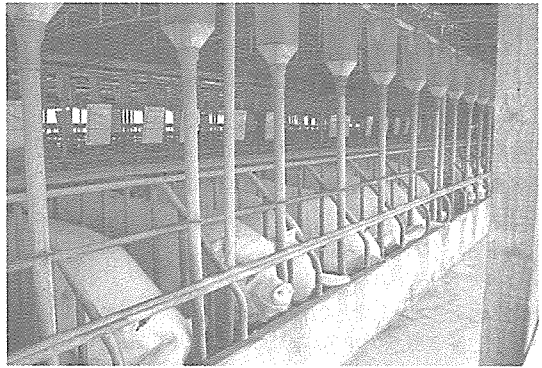
취재 - 배승한

응돈과 모돈의 철저한 관리

이명규 사장은 PED나 농장 질병을 관리할 때 백신사용은 좋지 않다고 말한다. “자연적 면역력을 높여 돼지들이 이겨나갈 수 있게 해야지 백신을 자주 사용하면 계속해서 백신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라고 말한다.

도암농장의 이명규 사장은 2003년 당시 4~5마리의 자돈에서 처음 PED를 발견했다. 이명규 사장은 PED의 근본적인 원인이 응돈과 모돈에게 있음을 알고 발견 즉시 응돈에게 면역증강제를 투여하고 돈방의 온도를 철저하게 했다. 또한 돈사소독과 물청소를 응돈방과 분만사에서 매일 실시하였다.

이명규 사장은 “건강하고 튼튼한 자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모돈부터 건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모돈의 산차관리와 바디컨디션을 철저히 관리하여 강건성을 높여 건강한 자돈이 생산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명규 사장의 이러한 PED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근본적인 원인부터 제거하려는 노력이 도암농장을 최고의 성적을 내는 농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 철저한 수세 청소로 임신사와 분만사를 청결히 유지하고, 모돈의 바디컨디션을 철저히 관리함으로 모돈의 강건성을 최대화하고 있다.

포유자돈의 관리

이명규 사장은 건강한 포유자돈을 생산·유지하기 위해서 분만후 포유자돈에게 광범위 항생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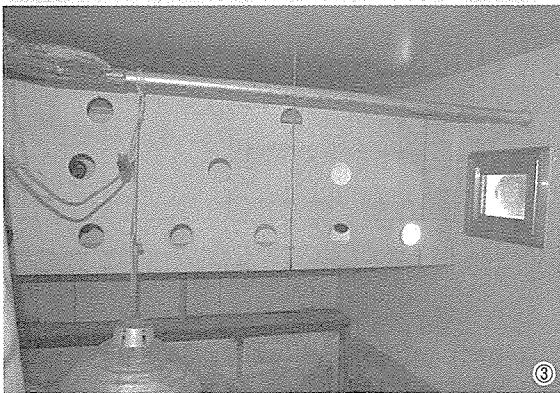


▲ 컨테이너 사용기간 동안은 실내온도를 28~30℃로 유지시켜 주고 체중별로 자돈을 분리한 후 항생물질인 페니실린제를 두당 100씩 주사하고 있다.



<돈사의 온도와 환기관리> 돼지의 일령과 체중에 맞는 온도와 환기량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웬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입기구에는 여닫이문이 있어 필요 환기량에 따라 문을 여닫을 수 있다. 또한 직원들의 작업 효율을 위해 여닫이문에 일일이 언제 열어야 할지 설명문이 있었다.

- ① 돈방 온도 및 환기 자동조절기
- ② 자동조절기에 의해 웬이 작동한다.
- ③ 덕트를 통해 공기가 돈사로 들어온다.
- ④ 환기 입기구



100씩 주사하고 어미로부터 최대한의 면역물질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포유자돈의 초유 섭취에 무엇보다 관심을 가졌다. 포유자돈이 충분한 초유를 섭취할 수 있도록 매일 분만사에서 포유자돈을 관찰하고 힘이 없어 제대로 먹지 못하는 자돈을 철저히 관리하였다. 또한, 자돈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기 위해 생후 5일령까지 거세를 완료했으며 AR을 방지하기 위해 생후, 3일령, 10일령에 각각 비강분무를 철저히 실시하였다. 부족한 철분을 공급하기 위한 철분주사를 정량에 맞게 철저히 시행하였고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입질사료를 건식 급여했다.

이명규 사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묵묵히 계획에 따라 시행함으로써 자돈의 강건성을 높일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질병에 대해 자돈들이 이겨나갈 수 있었다. 이명규 사장은 “PMWS나 PED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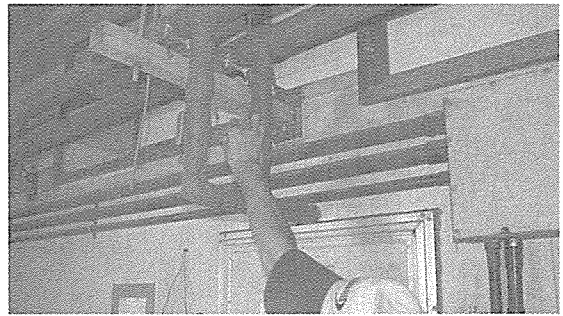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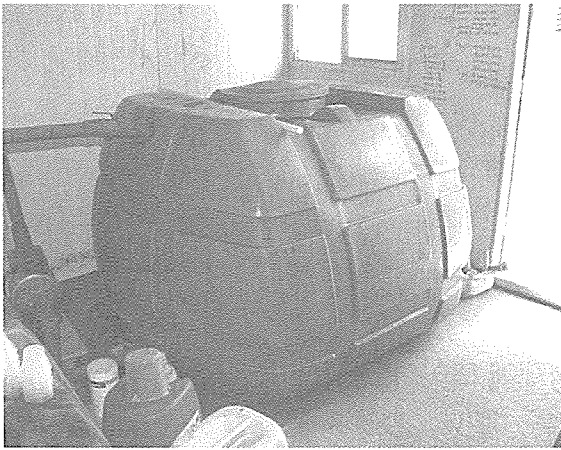
은 질병들은 환경, 돼지 자체, 질병 3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질병이 상존해 있다면 매일 청소와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을 좋게 하고 계획된 사양방법에 따라 돼지를 관리함으로써 돼지 자체의 면역을 증가시키는 것이 질병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이다”라고 평소 자신의 질병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돈사의 환기와 온도관리 투자

이명규 사장은 환기 및 환경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의 사진과 같이 환기와 온도관리 시스템을 교체했다.

충분한 이유자돈의 사육공간 확보

도암농장에서 발견된 PMWS는 외부로부터 유



▲ 육성·비육사에는 일반물 라인과 약물 라인이 따로 있어 음수를 통한 관리를 할때 약물배합기에서 약물이 약물라인을 통해 각 돈방으로 공급되고 있다.

입된 것이 아니라 농장 자체에서 발병된 것이다. 이명규 사장은 PMWS가 자돈에게 발병되자 전문가와 상의 후 이유자돈의 사육가능공간을 늘여 밀사를 방지하고 충분한 수세청소 및 소독 시간을 갖기 위해 컨테이너 2기를 즉시 구입했다.

이명규 사장은 포유자돈이 이유되는 시기가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이후 10일간 사용하는 컨테이너에서의 사육환경과 사양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사용기간 동안은 실내온도를 28~30℃로 유지시켜 주고 체중별로 자돈을 분리한 후 항생물질인 페니실린제를 두당 100씩 주사했다. 또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입질사료와 면역증강제를 섞어 하루 4번 건사료와 함께 급여했다. 이로써 자돈의 면역저하를 막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튼튼한 자돈을 생산할 수 있었다.

<김형린 대표가 말하는 여름철 온도관리 주의점>

열량계수 = 온도 습도 풍속, 즉 열량계수는 온도와 습도 그리고 풍속을 곱한 수치가 된다. 돈사내 풍속이 일정하다면, 온도와 습도로 열량계수가 결정된다. 보통 열량계수가 2,100이상이면 돼지가 열사병에 걸리수 있는 범위에 들어간다. 여름철 한 낮의 돈사

내 온도가 34℃이고 습도가 70%라고 한다면 열량계수는 2,380이 된다. 사양가는 돈사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보통 돈사내에 물을 뿌려준다. 하지만 이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즉 온도는 그대로인데 습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열량계수가 증가하게 된다. 70%에서 80%로 증가했다고 가정한다면 열량계수는 2,720이 된다. 돈사내 환기가 불량하거나 통풍이 잘 되지 않는다면, 돈사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무조건 물을 뿌리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농장을 떠나면서

이명규 사장을 만났을 때, 검소한 옷차림에 오래된 1톤 차를 몰고 오는 모습에서 과연 모든 350여두의 농장 사장님인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농장을 둘러보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비록 자신에게는 검소하지만 농장경영에는 검소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농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기 및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 그리고 철저한 사양관리방법에 따라 묵묵히 이를 시행하는 모습에서 이명규 사장의 알찬 사업가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양돈**